



牛脂 수입價格急騰

日本에서는 야자油와 牛脂의 수입가격이 최근 2주일간에 급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이상 기상으로 농산물이 흥작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풀이 되고 있으며 大豆의 국제 시세가 뛰는데 유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日本업계에 의하면 야자油의 수입가격은 지난 3월까지 kg당 CIF기준 1백 20円의 낮은 가격이었으나 그후 차츰 오르기 시작, 6월 말에는 1백 45円이 되었다가 7월에는 갑자기 치솟아 현재 1백 85円으로 올랐고 1백 90~2백円선까지 올랐다가 결국 1백 65円정도에서 주

저 앓게 될 것이라고 판망하고 있다.

이는 공산권제국의 수입량이 느는데 비해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코프라야자가 가름으로 감소된 영향이라고 한다.

한편 牛脂의 경우 美國產 표준 규격 FOB기준으로 6월 초까지 日本의 수입가격이 톤당 3백 70달러 선이었던 것이 7월에는 4백 10달러로 뛰었고 앞으로 더욱 오르기만 하고 안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의 목초홍작과 濱洲의 파업, 美國產 大豆시세의 상승기조 등의 영향을 입어 연말까지 牛脂는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 같다는 것이다.

코코아原豆 史上最高價

코코아原豆의 국제지표인 런던 코코아정기 시세가 사상 최고가권에서 맴돌고 있다.

지난 년초에 파운드화의 약세를 계기로 단번에 톤당 1천 2백 50파운드선까지 치솟은 런던 정기시세는 요즈음에 와서야 겨우 숨을 돌린격이지만 아직도 당분간은 그대로 높은 시세가 계속될 전망이며 이러한 속등세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 위험성도 있어 신품 수확량이 알려지는 가을부터는 내릴듯한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코코아原豆가 천정부지로 오른데는 주산지인 모잠비크와 로디지어가 교전 상태에 들어간 것과 파운드화의 하락이 주원인이지만 이것은 곧 美國시장에도 파급되어 지난 6일의 뉴요크 정기시세는 파운드당 1백 센트를 넘어서는 광란적인 등세를 보였다.

美國서의 이런 기록적 상승은 시카고 곡물시세의 강세화와 美國의 경기회복에 따른 소비증가가 지적되고 있다.

即席食品 제조 美서 獨占權

日本의 식품메이커 日清食品은 지난 12일美國에서 特許權을 확립했다. 이로써 동사는 스낵麵을 포함한 斷熱性容器들이 即席食品 전반에 걸쳐 美國에서 獨占 제조하는 권리를 얻은 것이다.

동사의 특허권 확립은 美國의 식품메이커가 同市場에의 新規參加를 저지하는 것이며 美國에서 스낵麵의 생산 계획을 수립한 동업메이커인 東洋水產을 비롯한 스낵麵수출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日清食品은 71년에 美國特許廳에 出願했으며 최근 特許查定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확립했다.

동사의 특허는 종이나 스티를 등 斷熱性容器에 식품을 充填密封한 것이며 热湯을 넣으면 短時間내 조리 할 수 있는 即席食品의 제조에 관한 것으로서 스낵麵을 비롯한 첨들이 코코아 등이다.

세계 雪糖需給 완화

금년의 설탕 생산량은 원당기준으로 작년보다 3.8%증가한 8천 2백만톤으로 예상되어 설탕需給사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西獨의 설탕관계 전문조사기관인 F.O리히트社는 금년의 설탕생산이 작년보다 3.8%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2.3%증가에 그쳐 공급이 수요를 능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國際 설탕수급사정이 완화될 것은 첫째 쿠바등 주요 생산국들의 作況이 순조로운 데다 개발도상국들의 소비가 대폭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도상국의 소비감소는 71년부터 74년 말까지 계속된 가격폭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브라질 大豆수출 規制할듯

금계절중 브라질의 주요 大豆생산 지역중의 하나인 리오그랜드슬루주의 大豆수출 코타량은 당초 계획된 바는 2백 5만톤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브라질 銀行(CACEX)의 수출입부 대변인이 최근 밝혔다.

이 조치는 美國내 大豆粕수요의 증가와 소련의 대량 구매로 인한 국제시세의 상승추세로 브라질내 수입업자들의 과당수출경쟁을 제한하고 국내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한편 국제 대두시세는 7월 15일 현재 부셸당 6백 66센트(9월 先物사카고市場)에 달해 약 18개월만에 높은 상승률을 시했한다.

코피 生產國들 會同

中央아메리카 코피生産國들은 코피市場狀況을 檢討하기위해 멕시코 베라크루즈에서 모였다.

이會議는 모든 中央아메리카 코피生産國들 年例總會 參席차 멕시코에서 會同하는 기회를 이용, 計劃된 것이다.

뉴욕 1차產品 先物市場에서 中央아메리카 코피價格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은 후 현재는 파운드당 1.60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코피價格은 美國輸入業者, 加工業者 및 販賣業者의 購買動向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國際코피專門家들은 전망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